

교실에 ‘AI 교사’… 디지털 교육도 새판 짬다

교육부 10년만에 조직 전면개편 A1면에서 계속

교육부 담당자는 “‘대학’과 ‘학교’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조직이 돌아가니 학교들을 규제하고 관리하게 되고, 다른 부처가 저출산이나 4차 산업혁명 같은 사회 이슈에 대해 협업을 하자고 해도 대학·학교 운영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 잘 나서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교육부가 전(全) 사회의 인재 양성, 사회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대학 규제 업무가 많았던 ‘고등교육정책실’이 12년 만에 폐지된다. 대학 관련 조직은 과거 과(課)나 국(局)으로 주로 운영되다가, MB 정부 때인 2011년 ‘대학지원실(室)’로 몸집이

대입정책과를 인재선발과로 변경
학교혁신실은 책임교육실로 바뀌
유아교육·기초학력 강화 등 추진

커져 지금까지 유지됐다. 이번 개편에서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고등교육정책실에 있던 대학 재정, 학사, 법인 등 규제 업무는 별도로 신설되는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옮긴다. 대학규제개혁국은 차관 직속 독립국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고등교육정책실 대신 ‘인재정책실’이 신설된다. 이주호 장관은 MB 정부 때 처음 교육부 장관을 맡았을 때도 인재정책실을 만들었지만,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엔 신설되는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정책을 기획하는 ‘인재정책기획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 허브 기능을 할 수 있게 돕는 ‘지역인재정책관’,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직업교육정

책관’을 둔다. 교육부 송선진 혁신행정 담당관은 “인재정책실 소속 국장들은 ‘저출산 시대 핵심 인재 양성’ ‘지역 소멸’ ‘고령화 사회의 평생 교육’이라는 국가적 사회 이슈를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대학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정책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지자체나 대학이 협력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달 본지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예산을 지역 대학에 나눠주기보다 지자체장에게 예산을 주고 지역 대학과 협의해 지역 산업을 일으키는 데 쓰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관련 업무를 할 과(지역인재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를 만든 것이다. 기존 ‘대입정책과’는 ‘인재선발제도과’로 이름을 바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과 학교 현장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신설한다. 이 장관은 교실에 ‘AI(인공지능) 보조교사’ 등 에듀테크(EduTech)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맡게 된다.

초·중·고교 교원 양성, 예술·체육 교육 등을 담당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바뀐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 학력 보장, 유아 교육·돌봄 강화 등을 통해 유아·초등 단계부터 학생 간 격차를 줄여주고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가교육책임제’가 대표적 교육 국정 과제다. 책임교육정책실에서 이런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은 별도 추진단을 설립할 계획인데, 이번 조직 개편에 담기진 않았다. 교과부 측은



김동환 기자
임진왜란 때 거북선 재현 6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거북선 부두에서 430년 전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거북선이 공개됐다. 해군은 과거에도 두 차례 거북선을 재현한 적이 있지만, 이번 3차 거북선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실제 일 본군과 전투에서 활용했던 거북선과 가장 비슷하다. 해군은 역사적 고증 등을 거쳐 4년 만에 거북선을 완성했다.

“행정안전부와 별도 조직을 만드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교육부 조직 개편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대학 자율을 확대하고 교육부는 지원하는 부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실해 퇴출 등 대학 구조 조정과 대학 비리 문제가 소름 끼치게 취급될 수 있다

는 우려도 나온다. 배영찬 한양대 교수는 “교육부가 중증고교 업무를 최소화하고, 대학 정책에 집중하면서 국가의 전반적 고등교육 인재 양성 그림을 그리는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동시에 부실 대학 문제, 비리 대학 관리에도 나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 2024년 중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법상 용어를 정비하고, 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무분별한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지윤 기자

文정부때 코이카 들어온 시민단체 출신

22명 매관매직한 코이카 前이사

A1면서 계속

현직 코이카 직원은 “이미경 이사장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2인자 노릇을 한 것”이라고 했다. 송씨는 과거 취임 기념 인터뷰에서 “직원들을 혁신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사람 중심의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감사 결과 자신이 매관매직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송씨가 과거 시민 단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대학 선배 A씨에게 9회에 걸쳐 6400만원을 수수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2019년 10월 A씨를 코이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2020년 7월에는 공정 무역·개발 협력 사업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업체에서 2820만원을 받았다. 송씨는 이후 코이카 담당자에게 “신규 사업 추진 및 입찰 공고 등 계약 진행 상황을 업체 대표와 공유하라”고 지시해 계약 편의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송씨는 직원들에게 돈을 받고 근무 평가를 조작해 승진을 시키거나 선호하는 해외 사무소로 발령을 내기도 했다. 송씨는 2018년 11월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밖에 있던 B실장에게 2500만원을 받았는데 “이후 근무 평가를 조작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B씨를 3급으로 승진 임용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송씨는 인사위원장으로 각종 정보를 총괄하면서 회망하는 해외 사무소 발령을 내주는 대가로 6명에게 8700만원을 수수했

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손혁상 이사장도 경희대 교수 시절인 2020년 4월 송씨에게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줬고, 같은 해 12월 이사장직에 선임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송씨가 친분이 있는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총 14명)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추천했고, 이들이 서류와 면접심사에서 손 이사장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이사장은 본지 통화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송씨가 자녀 학비가 모자란다고 해 은행 송금을 하고 차용증도 받았다”며 “당시는 이미경 이사장 연임설이 나오던 때로 이사장직 지원은 생각하지도 않던 시절”이라고 했다. 현재 손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다수가 송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코이카 측은 임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제기한 상당수 사례가 송씨가 개별적으로 호소한 경제적 어려움(급여 압류, 신용 불량)에 대한 도움이 취지로 행한 대차 행위(돈을 빌려준 것)로 확인됐다”고 했다.

송씨를 둘러싼 의혹은 2020년 말 “직원 돈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코이카 내부에서 나오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코이카는 송씨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했고 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3주 만에 “중대 사안이 없었다”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해임 등 징계 없이 송씨를 면직 처리했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로 ‘꼬리 자르기’가 드러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韓총리 “내달말 마스크 해제, 전문가 검토중”

“적어도 겨울 유행은 지나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년 1월 말쯤 그런(마스크 해제) 요건에 달할 수 있을까라고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회의 권성동 의원의 “내년 1월 말 해제 시행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었다. 한 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여건만 되면 빨리 벗고 싶다는 게 저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런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전체적인 질병 관리에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마스크를) 벗는 조건이나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적어도 겨울 유행

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미리 검토해 놓아야 한다’고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날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관제지원 위원장도 라디오에서 “저는 1월 말(해제) 가능하다고 본다”며 “자연 면역과 인공 면역이 합쳐지면 대부분이 면역을 갖게 되는 때가 1월 말이면 올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추진에 반대하며 “(올해 안에) 풀면 안 된다. 겨울 한복판에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 평균 50명씩 돌아가시는 마당”이라고 했다. 선정민 기자

반려동물 기르는 집 606만 가구… 정부, 전담조직 만들기로

정부가 반려동물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6%인 606만가구로 늘면서 관련 업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환경정책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농식품부의 농업

생명국 동물복지정책과(10명)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동물 진료 관련 3명)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동물복지정책과(11명), 반려산업동물료팀(9명), 농촌탄소중립정책과(13명)가 동물복지환경정책국으로 합쳐졌다. 반려동물 담당 인력도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들은 동물 학대·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 의료,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을 담당한다.

이날 정부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한 해에 주인이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유기·유실 동물 12만마리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인 6만마리로 줄이고, 한 해 2100건에 달하는 개 물림 사고를 1000건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모집
● 현금보장
● 이식대우
● 급여·배당금
● 퇴직금
◇ 기획재정부, 부동산사업 ◇
010-8393-2739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2022.09.05(서울가정법원)
고상승(인: 100-100000-100000)
회주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4로 40-4
자세한 내용은
법원이나 지방법원 및 법원의 법원장에게
문의하시거나 본지 사법정책팀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 7일
공 고 인: 송영호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4로 40-4 100-100000-100000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2022.09.05(서울가정법원)
고상승(인: 100-100000-100000)
회주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4로 40-4
자세한 내용은
법원이나 지방법원 및 법원의 법원장에게
문의하시거나 본지 사법정책팀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 7일
공 고 인: 송영호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4로 40-4 100-100000-100000

투자자 모집
(부동산 담보설정)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연 20%
신속한 자금회환 가능
(02) 541-0371
010-4554-8456

무점포 창업
발명제품,
고소득 평생사업
(053)253-0774

조현병
기적의 최단효과
원인은 토산자기장
010-8062-2588

광고주를 모십니다
합리적인 비용 · 최고의 광고효과
₩198,000
모집 · 광고
투자자
₩132,000
학원 · 서적
기타 영업
평일기준 가격이며, 광고횟수와 종류에 따라 (가격 할인 가능)합니다.

투자자 모집
투자금 1억 ~ 15억
고소득 보장 사업
교육 및 부동산 사업
(02) 724-5838
▲ 모집광고 샘플
가로 2.7cm × 세로 2.9cm

AD본부 (02) 724-5838
조선A&B 070-7537-0131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발목 절단후 의족 재활 도와주세요”
교통사고 후 왼쪽 발목 관절에 다방향 부정유합이 발생해 보행 시 앞으로가 아닌 옆으로 걸어야 해요.
발목은 왼쪽으로 삐뚤어지고, 무릎에서 내려가는 다리는 발목에서 가운데로 안 들어가고 오른쪽 들어가서 뼈가 붙었어요. 그래서 걸으면 옆으로 걷게 돼요. 앞으로 걸어야 하니 보행시 골반은 좌측으로 빠지고 상체는 우측으로 기울어져서 걸어야 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리 빌려 걷고, 골반도 약간 틀어 걷고, 발목까지 돌려 걸어도 똑바로 걸을 수도 없고 또 다른 통증이 와요. (무릎 고관절 염증이 통증 등등) 깨끗이쳐서 옆으로 걸어서 앞으로 걷는게 더 편해요.
지금도 발목 부정유합의 변형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15년 1차 골절 탈구 수술 후 2022년 1월에 타 병원에서 부정유합수술은 해보지도 못하고 관절염 수술인 과상부절골 수술을 했고, 불유합으로 또 다른 병원에서 2022년 6월 부정유합 수술은 안 되어있고, 불유합수술과 과상부 절골술을 또 했어요. 걷는게 더 어려워졌어요.
이젠 수술은 안된다고 하네요.
■ 재활도 뼈가 잘 못 붙은건 재활이 안되네요.
■ 일상생활이 전혀 안 돼요. 걸으면 걸을수록 아파요.
■ 보행 장애로 근골격계 다 무너지네요.
■ 앞으로 걷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도 있네요.
■ 발목 절단후 의족 재활이 저에게는 치료인 것 같아요.
■ 의욕하고 앞으로 똑바로 걸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 더 늦기 전에 재활 도와주세요. 앞으로 걷게 해주세요.
■ 의사 선생님 용기 내 주세요. 걷고 싶을 있게 해주세요.

연락주시면 어디든 갈게요
☎ 010 2337 9687
Instagram : junki.2017 TikTok : hsj9687

콘도 회원권 구매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최저 매각합니다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만원)

콘도명	사 용 체 인	면 적	최종분양가	매각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 1개	2,660	1,880
		스위트형 방 2개	3,790	2,980
		디럭스형 방2(7기)	2,530	1,7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평강스키장, 포천산정호수, 대천해수욕장, 해운대, 제주, 경주, 박암온천, 거제, 여수호텔, 서울프라자호텔, 양양브리드호텔, 기장마티에호텔	디럭스형 방2(무기)	3,160	1,980
		로얄형 방3(무기)	6,050	4,180
		패밀리 (21) 방1	1,980	1,380
켄싱턴 (통합회원권)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남원,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제주중문, 경주보문단지, 해운대, 도고온천, 치리산하동, 충주돈산온천, 사이판	스위트 (25) 방2	2,120	1,680
		스위트 (31) 방2	2,600	2,080
		로얄 (35) 방3	3,550	2,98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

C콘 조선일보가 차별화된 모바일쿠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비즈니스 성공을!

- 기업 프로모션·이벤트 등 고객 마케팅에 활용
-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선물하기 가능
- 커피·영화 등 다양한 상품 활용 가능
- 뛰어난 접근성 및 모바일 편리성이 장점

C콘 관련 문의 및 사업제휴, 이벤트 & 프로모션 제안을 기다립니다.

- B2B담당 02)724-5889
- 이메일 cconb2b@chosun.com
- 홈페이지 www.chosunccon.com